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ICT융합 보안 산업 현황

경제 이슈: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퇴직연금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 5C

세심록

바른 몸가짐(척궁, 飭躬)

Book Review

필요, 속도, 탐욕 (당신은 새로운 혁신 세 가지를 갖고 있는가)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3년 1/4분기 가계지출, 금융위기 이후 4년만에 감소

-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3년 1/4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7% 상승했지만, 소비지출은 1.0% 감소하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
 - **가계소득**: 2013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9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제외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0.3% 증가
 - **가계지출**: 2013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4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실질소비 기준으로는 2.4% 감소함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층, 품목별로도 교육, 복지 분야의 소비도 줄어들고 있어 소비심리 악화가 국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 동향: 국내외 투자자의 매수세로 코스피 2000 시대 재진입

- 유럽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북한 리스크 감소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장은 투자자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보합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5월 10일 2.55%에서 5월 30일 현재 2.75%로 0.20%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일본 엔화 약세 지속과 원-엔화의 동조화 현상 등으로 5월 10일 1,108.0원에서 5월 30일 현재 1,128.0원으로 20원 상승
 - 코스피 지수는 주요 선진국 증시의 하락에도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5월 10일 1,944.8에서 5월 30일 2,000.1을 기록하면서 강세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5/10	5/30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7	-3.0	1.8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3	1.2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5	3.2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49.8	39.7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55	2.75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08.0	1,128.0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944.8	2,000.1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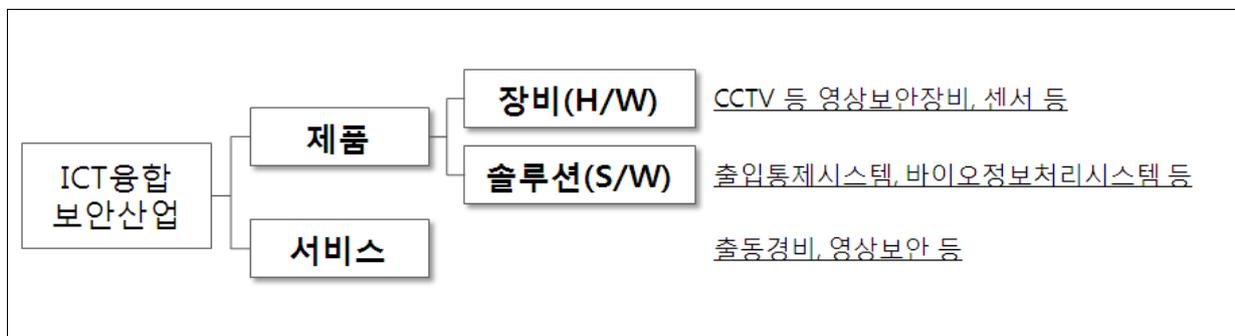
2) 실물지표 중 5월 10일은 3월, 5월 30일은 4월 수치임.

□ 산업 이슈: ICT융합 보안 산업 현황

○ 개요

- (정의) ICT융합 보안이란 재난·재해·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보안 체계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의미
- ICT 융합 보안 산업은 제품(장비, 솔루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포괄
- (장비) 영상장비, 센서, 통신장비 등 보안 관련 하드웨어의 개발 및 생산
- (솔루션) 하드웨어로부터 입력받은 정보를 저장, 가공, 처리하여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 (서비스) 장비와 솔루션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 (중요성)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재난 피해 증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조, 정부의 신성장 산업 육성 의지 등에 따라 산업 중요성이 높아짐

< ICT융합 보안 산업의 분류 >



○ ICT융합 보안 산업 현황

- (시장규모) 세계 시장은 연평균 11.8% 성장, 국내 시장은 연평균 13.5% 성장
- (세계시장) 2008 년 1,542 억불에서 2013 년 2,698 억불로 연평균 11.8% 성장이 예상되며, 현재 선진국 중심의 시장에서 개도국 비중 확대가 전망됨
- (국내시장) 2008 년 2 조 5,176 억원에서 2012 년 4 조 1,775 억원으로 연평균 13.5%, 수출은 같은 기간 5,897 억원에서 1 조 3,120 억원으로 연평균 22.1% 성장

- (산업트렌드 및 특징) 전형적인 하이테크 산업으로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의 대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산업 총괄) 고기술화, 대형화·구조화, 융합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
 - (장비) 장비부문은 경기변동에 꾸준한 수요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솔루션) 솔루션 부문은 활발한 기술개발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신규기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서비스) 서비스 부문의 경우 소비자 수요에 맞춰 대형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범위의 경제가 작용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에 유리

○ 주요 기업 동향

- (장비 시장) 삼성테크윈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가운데 기술을 보유한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삼성테크윈은 세계 영상감시장비시장의 4.7%, 내수 카메라시장의 50%를 점유
 - ITX 시큐리티는 포항공대와 협력을 맺고 영상처리 신기술의 제품화를 추진 중
- (솔루션 시장) 기술기반 중소기업들이 보안장비 및 통신망과의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
- (서비스 시장) 대기업 계열 경비업체들이 출동경비·무인감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SI업체들은 재난대응 SI사업, 교육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 확대
 - ADT 캡스, KT 텔레캡, 에스원 등 대기업이 주요 출동경비·무인감시 서비스 제공자로 자리잡고 있음
 - 삼성 SDS, SK C&C 등 대기업 SI 업체들이 재난·소방정보화 등 재난 대응 SI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스원이 보안관련 교육사업을 영위

□ 경제 이슈: 엔화 가치 급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엔/달러 환율 110엔 이상 돌파 우려

- 최근 엔/달러 환율은 아베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 시행으로 4년 만에 100엔대를 돌파하는 등 빠르게 절하되고 있다. 엔저 현상은 향후 1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추세대로 엔화가 절하되면 상반기말에 110엔, 연말에 120엔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엔화 가치 급락의 배경

- 첫째,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 완화 정책 시행이다. 아베 정부는 엔저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본원통화 확대, 국채매입 규모 및 범위 확대 등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G7회의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엔저를 용인 받으며 엔화의 절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둘째,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이다.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한 일본은 최근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셋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이다.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던 엔화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며 수요가 감소하였다. 넷째, 일본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며 적절한 통제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던 엔화가 점차 정상화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엔화 약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금융시장 충격) 엔화 환율의 급격한 약세는 원화 환율 변동성을 높인다. 엔/달러 환율이 1% 변할 때 원/달러 환율은 0.62% 변한다. 또한 엔화 환율의 약세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낮추고 주식시장을 위축 시킨다. KOSPI 주가와 엔/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0.70으로 엔화 환율의 가치가 약세일 때 KOSPI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 (대외거래 악화) 엔/달러 환율이 2013년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국내 총수출은 2.6% 감소한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철강 326억 달러(-11.9%), IT 1,098억 달러(-1.8%), 기계 380억 달러(-1.7%)로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은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으로 상승시 2.5% 감소한다. 무역수지는 엔/달러 환율이 연평균 100엔일 때 268억 달러로 전년대비 15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관광수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감소하는 반면 일본으로의 한국인 관광객은 늘어 약 10.9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 (성장률 둔화) 엔화 약세로 인한 무역수지 및 관광수지 악화 등은 국내 경제 성장률을 0.2%p 내외로 감소시켜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시사점과 과제

- 첫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엔 환율의 급락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관련 국가들과 통화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주요 수출시장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 향상, 마케팅 강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엔저 지속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국가차원의 글로벌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과 경제민주화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외

□ 이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 5C²

<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 5C

- ① 가치전환형 소비(Conversion)
: 소비에 대한 사고방식이 소유가치 중심에서 이용가치 중심으로 전환
- ② 미래대비형 소비(Concern)
: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불안·걱정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비하는 소비 확대
- ③ 편리형 소비(Convenience)
: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편리형 소비 증가
- ④ 충전형 소비(Charge)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휴식·충전형 소비 확산
- ⑤ 위로형 소비(Comfort)
: 가족규모 축소, 경쟁사회 등에 따른 고독과 스트레스로 위로형 소비 발생

시 사 점

- 첫째, 내구재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렌탈·임대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둘째, 국가의 공적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 셋째,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에 대응해 지속적인 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정책 및 소매판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넷째, 여가산업의 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의 소비 산업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 유인이 요구된다.
- 다섯째, 심리 위로형 산업의 활성화, 대형화, 전문화에 대응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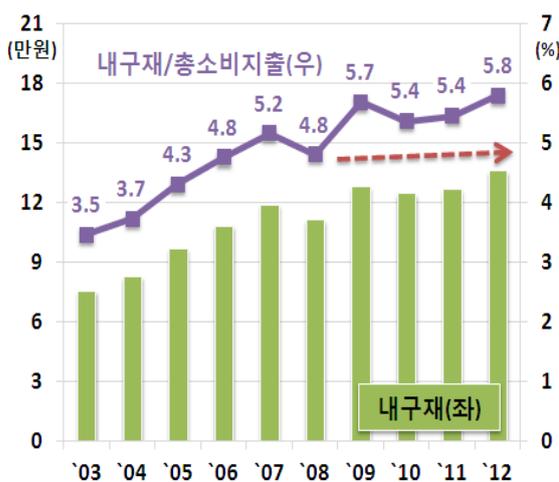
² 백다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트렌드의 특징' 『VIP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3.05.27. 을 요약

□ 최근 가계 소비트렌드 변화의 특징 : 5C

○ 가치전환형 소비(Conversion) : 소비에 대한 사고방식이 소유 가치 중심에서 이용 가치 중심으로 전환

- 가계의 내구재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정체
 -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가계의 내구재 지출은 2007 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내구재 지출 비중은 2003 년 3.5%에서 2007 년 5.2%까지 상승함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지속되면서 2009~12 년 내구재 소비 규모는 약 12 만원 수준에서 정체된 상황
- 소비 관련 인식이 이용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임대·렌탈 산업이 성장
 - 2008~11 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연평균 27.6%의 고성장세를 보인 반면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연평균 -1.7%의 감소세를 보임
 - 또한 과거 비데나 정수기 중심의 임대·렌탈 시장이 가전, 가구 등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임대업(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이 동기간 연평균 29.1% 성장함

<가계 내구재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임대업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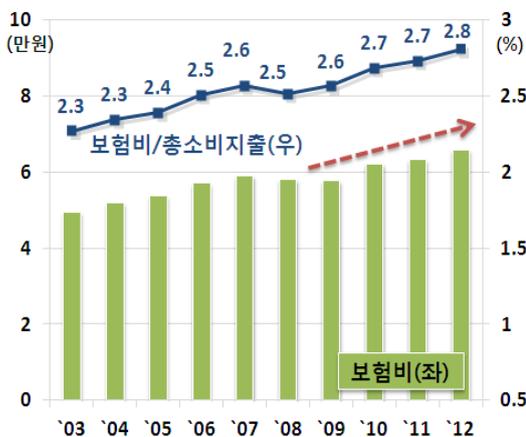
산업 구분	'08~'11 (%)
부동산임대및공급업	2.7%
주거용건물임대업	27.6%
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	-1.7%
자동차임대업	12.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13.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26.3%
서적 임대업	-13.0%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29.1%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주: 매출액 기준.

○ 미래 대비형 소비(Concern) : 불확실성 증가로 미래에 대해 불안·걱정이 가중되면서 가계가 이에 대비하는 소비 확대

-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가계의 보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계의 보험비(민간보험) 지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7~09 년을 제외하고 가계의 보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총소비지출 대비 보험비(민간보험) 지출 비중은 2008 년 2.5%에서 2012 년 2.8%로 소폭 증가
 - 공보험인 연금 및 사회보험 지출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총가계지출 대비 보험(공보험+민간보험) 지출 비중은 2003 년 7.1%에서 2012 년 9.0%까지 상승
- 미래에 대한 불안에 불황까지 겹치면서 복권 판매가 과열되고 있음
 - 2002 년 '로또' 도입 등으로 엄청난 성장을 기록했던 복권 산업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판매량이 반등하며 3 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
 - 정부는 2009 년 이후 복권 등 사행산업의 매출 한도를 설정했으나 최근 2 년간(2011~12 년) 복권 발행 실적이 정부의 권고 매출 한도를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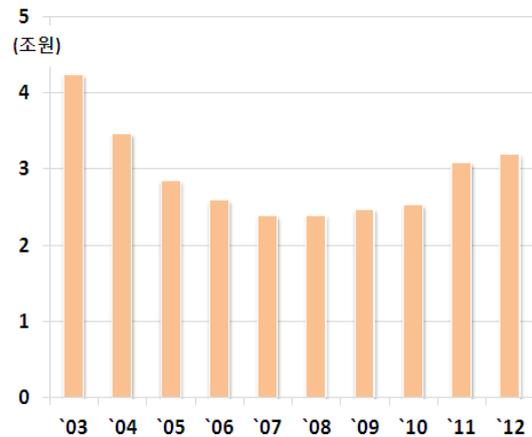
<가계 보험비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복권 판매 추이>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편리형 소비(Convenience)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싱글슈머(Single+Consumer)' 등장으로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편리형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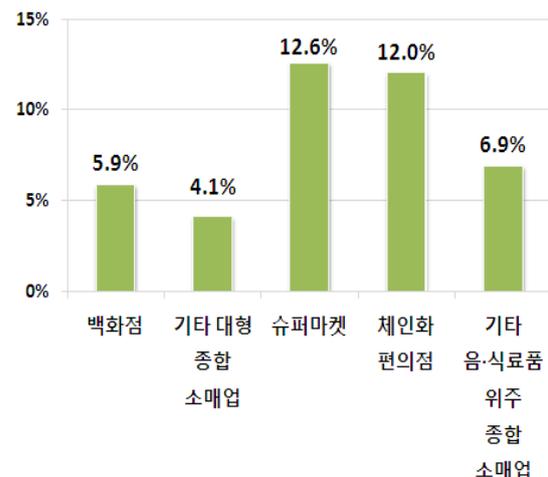
- 가계의 식료품 구매 패턴이 변화하면서 간편하고 빠르게 소비 가능한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
 - 가계의 식료품 소비 중 가공식품 지출액은 증가하고 신선식품 지출액은 감소하면서 가공식품의 소비 비중은 2012년 약 30%로 2009년 이후 급증
 - 빠르고 간편한 것을 찾는 소비 성향의 증가로 가공식품 소비 비중이 증가
-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이 여타 판매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08~11년 3년간 소매판매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백화점 5.9%, 대형마트(기타대형종합소매업) 4.1% 등의 성장세를 기록한 데 비해,
 - 소비자의 접근성이 우수한 편의점(체인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2.0%와 12.6%을 보임
 - 이와 같은 현상은 가깝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반영되어 접근성이 높은 판매채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

<가계 가공식품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소매업 연평균 성장률(2008~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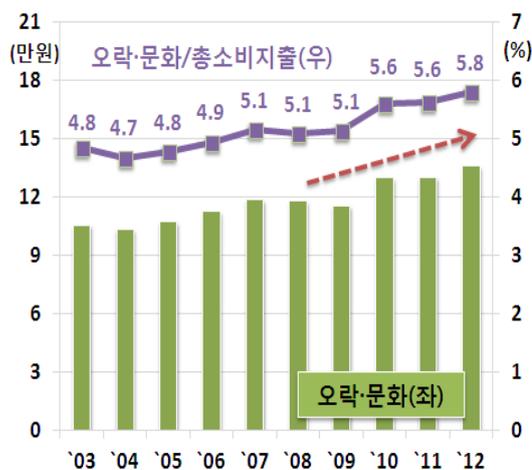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 조사'.
주: 매출액 기준.

○ 충전형 소비(Charge)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휴식·충전형 소비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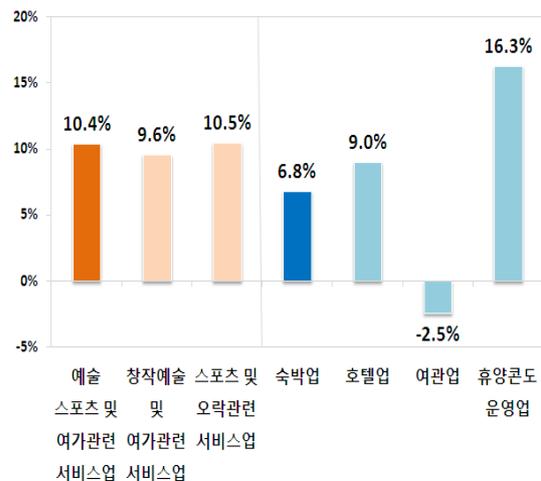
- 일과 삶의 균형 추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니즈로 금융위기 이후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이 상승하고 있음
 - 2009 년 이전까지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액은 11 만원 수준에 그쳤으며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 역시 4% 후반~5% 초반 수준을 유지
 - 그러나 2010 년 이후 가계의 오락·문화 지출액이 12 만원을 넘어섰으며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 또한 2012 년 5.8%까지 상승하면서 최근 10 년래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여가 소비의 증가로 예술, 스포츠, 오락, 숙박 등 관련 산업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여가 관련 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은 2008~11 년 산업 경기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4% 고성장함
 - 숙박업의 경우 여관업(2008~11 년 연평균 -2.5%)을 제외한 여타 산업이 모두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휴양콘도운영업의 매출이 동기간 연평균 16.3% 증가함
 - 불황에도 여가 관련 산업의 성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가계 오락·문화 지출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여가관련산업 연평균 성장률(2008~11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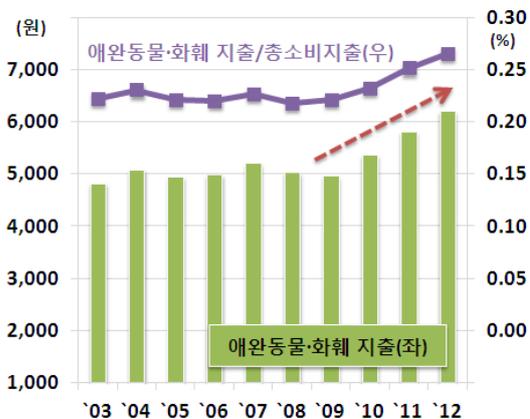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주: 매출액 기준.

○ 위로형 소비(Comfort) : 가족 규모 축소, 사회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고독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위로형 소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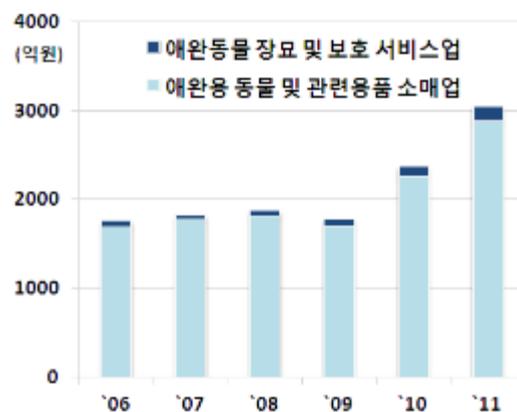
- 가족 규모 축소,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에 따른 심리적 고독감을 애완동물 등으로 위안하면서 가계의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증가
 - 가계의 애완동물·화훼 관련 지출은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약 5,000 원 규모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 년 이후 급증했으며(전년대비 2010 년 8.1%, 2011 년 8.4%, 2012 년 6.7% 증가) 총소비지출 대비 비중도 0.3% 수준에 육박
 - 1 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 등 가족 규모 축소에 따른 외로움으로 인해 애완동물을 통해 위안을 찾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애완동물 수요가 증가
- 가계의 애완동물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애완동물산업 매출액 또한 급증하는 추세
 -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지출액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지출액 합계로 애완동물 산업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2009 년 이전까지는 2,000 억 미만 수준을 유지했으나,
 - 이후 가계의 관련 지출 급증으로 2011 년 매출액은 3,000 억원을 돌파했으며 애견관련 미용 및 보건의료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성장률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가계 애완동물·화훼 지출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
주: 도시가구, 실질가격 기준.

<애완동물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주: 매출액 기준.

□ 시사점

○ 첫째, 내구재 소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렌탈·임대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가전, 자동차 등 렌탈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소유권과 사용권의 구분 확립,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임대주택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 둘째, 국가의 공적 사회 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인 보험업의 성장과 소비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를 도모해야 한다.

-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개발, 보험사 수익 기반의 다변화, 해외 사업 강화 등 국가 주력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
- 보험업의 육성과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보험약관 개정, 공격적 외형 경쟁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보험금 지급 선진화, 합리적 보험요율 책정 등 소비자의 보험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 년 총 접수 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과반수(48,471 건, 51.1%)로 전년대비 증가율(18.8%) 또한 기타 금융민원(은행 7.0%, 금융투자 -10.2%) 증가율을 상회

○ 셋째,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도모하고 소매판매업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가공식품 산업의 성장잠재력과 소비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함
 - 가공식품 산업은 식량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이면서 향후 개도국의 구매력을 흡수할 수 있는 주력 수출 산업이 될 수 있음
 - 현재 세계 가공식품 교역 규모는 전체 상품 교역의 약 7%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나, 이 시장의 대부분은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
 -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소매업 유통 채널의 과점형 성장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대응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 구조 효율화 정책이 필요

- 현재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중심의 편의점 산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
- 업계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독립형 편의점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유통 구조 효율화, 물류 시스템 개선 정책이 필요

○ **넷째, 여가산업의 급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문화·예술의 소비 산업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내국인 관광수요 유인이 요구된다.**

- 여가시간 및 소득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여가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문화·예술 부문이 소비자의 수요와 접목될 수 있는 온·오프 공간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임
 -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인과 소비자의 소통 확대를 위한 온라인 채널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
 - 또한,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등의 예술 공간의 추가적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권의 문화 공간 소외 현상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국내 관광 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치중한 나머지 내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여행수지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
 - 내국인의 관광 수요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자연자원이나 지역축제에 관광상품을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 중앙 및 지방 정부, 국내 및 해외 자본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수준급의 테마파크 조성 등의 인공 자원 개발이 시급

○ **다섯째, 심리 위로형 산업의 활성화, 대형화, 전문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 등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개인의 고독감,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에 대응하여 애완동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용품, 진료서비스, 미용 등 기존 관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보험, 여행, 유통 등 신규 사업의 창출이 기대
 - 또한 애완동물산업 이외에도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이 신규 산업으로 태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애완동물산업 등 심리 위로형 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생산, 유통 및 서비스업체들의 대형화·전문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정비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 백다미 연구원 (dm100@hri.co.kr, 2072-6239)

□ 洗心錄

□ 바른 몸가짐(칙궁, 飭躬)

술은 미국에서는 중독성 있고 위험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에서는 술을 물마시듯 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 신문의 1면 톱과 정치면 톱을 1주일 이상 장식했던 기사도 '술'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술 마시는 것의 위태로움에 관하여 이미 900여 년 전에 경고했던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을 맑은 취미로 잘못 생각하는데, 술 마시는 버릇이 오래가면 게걸스러운 미치광이가 되어 끊으려 해도 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중국 송나라 때의 재야학자 육구연의 말이다. 그의 통찰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며, 9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스란히 적용된다. 본인의 주량을 지키고, 주위에 폐 끼치지 않으면서 술 마시지 못한다면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할 것이며, 술을 강권하는 음주문화도 버릴 때가 되었다.

술의 위험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바른 몸가짐에 대해서도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의 칙궁(飭躬)편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을 단정히 입고 띠를 두른 후 조용히 앉아서 정신을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풀어내어 오늘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공문을 처리하고,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마음 속에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음 할 일을 잘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되, 사욕을 끊어버리고 하나같이 천리(天理)를 따르도록 힘써야 한다.”

생활은 부지런해야 하고, 정신을 맑게 하여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이치에 맞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비단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기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격언이다. 바른 몸가짐으로 윗분을 모시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면, 복잡한 경영 프로세스 속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조직의 단합과 경영실적 향상도 가능해질 것이다.

屈己者(굴기자)는 能處重(능처중)하고

好勝者(호승자)는 必遇敵(필우적)이라.

자기의 뜻을 굽혀서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위에 있게 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 명심보감(明心寶鑑) 계성편(戒性篇)

□ Book Review

□ 도서 및 저자 소개

- 필요, 속도, 탐욕 (당신은 새로운 혁신 세 가지를 갖고 있는가)

- 저자: 비제이 바이테스워런 (Vijay V. Vaitheeswaran)
 - <이코노미스트>를 대표하는 베테랑 기자이자 혁신전문가
 - 1992년 기자로 입사해 혁신, 정치, 경제, 글로벌 보건, 제약, 생명공학, 에너지 및 테크놀로지 분야를 다뤘고 뉴욕대학교 스톤 경영대학원에서 강의
 - 저서: <Power to the People(2004)>, <Zoom(2007)>이 있으며, 둘 다 에너지공학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 **탈산업혁명을 실현시키는 열쇠는 혁신에 있으며 혁신은 필요, 속도, 탐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함**
 - 기술적 발명은 '지속적 기술'과 '파괴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이 중 파괴적 기술이 곧 혁신을 의미
 - 이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 속도, 탐욕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이것이 탈산업혁명을 이끌게 될 것임

- **(필요)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방식이 필요하며, 그런 해결책은 미래의 유익한 산업을 창출할 것**
 - 글로벌 공공재에 발생하는 공유지의 비극(탄소 배출 등), 세계적인 빈곤 인구의 문제, 물-에너지-식량-기후의 관계 등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
 - 민주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혁신, 도시 인구의 증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혁신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은 이러한 난제 해결 방법의 힌트를 제공
 - 또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 주자들의 '간소화' 혁신은 선진국 내에서 경쟁을 유발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 **(속도) 혁신의 속도는 '융합'과 '혁신의 민주화'에 의해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블랙스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확률도 높아짐**
 - 다양한 분야의 핵심 기술 트렌드들이 융합하여 글로벌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제를 탈산업화 세계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음
 - 혁신의 민주화는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조직 내에서 만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한편, 글로벌 연결성 증가는 세계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예방, 예측, 대비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의 개발이 필요

- **(탐욕) 기업의 대차대조표와 국가의 회계정책에는 '자연 자본'과 '인간 자본'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자본주의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
 -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윤도 역시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이 보편화될 것임
 - 개인이나 기업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탐욕이 필요함

- **파괴적 혁신 12계명: 더 뛰어나고, 더 빠르게 성공하는 승자의 법칙**
 - ① 혁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 ② 현지 상황에 맞게 구상하고 글로벌하게 실행하라.
 - ③ 회복력을 통해 위험 요소를 보상으로 변환하라.
 - ④ 문을 열어젖히고 "유레카!"를 외쳐라.
 - ⑤ 새로운 리듬에 맞춰 춤추는 공룡이 돼라.
 - ⑥ 현명한 절약이 화려한 소비를 누를 것이다.
 - ⑦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라.
 - ⑧ 아버지의 조언은 잊어라.
 - ⑨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라.
 - ⑩ 침체에서 회생으로 가는 비결은 혁신이다.
 - ⑪ 목적을 수익과 동등한 위치에 뒀라.
 - ⑫ 배우는 방법을 꾸준히 재학습하라.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